

베트남 국민방문 호치민市 동포 간담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분위기가 산다. 그렇죠? (웃음) 허종 호치민 지역 한인회장이 인사말씀을 하도 거창하게 잘 해줘 덤덤하게 생각하고 왔다가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눈을 껌뻑껌뻑 하시는데, 저보다 더 가슴이 찡하신 것 같습니다.

러시아를 다녀왔습니다. 그 전에 미국도, 일본도 갔지만 러시아를 다녀오면서 마음이 각별했습니다. 곡절이 많고 파란이 많은 열악한 조건에서 모질게 살아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상당한 지위를 일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국이 그냥 그리워 고국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뉴스가 있다지만 고국 소식이 원활치 못해 그리워하고 제가 가면 고향을 본 듯이 얼굴만 봐도 감동을 받곤 하더군요. 저도 진지해지면서 한편으로는 무겁고 한편으로는 감동받으며 그렇게 대화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인도, 하노이 그리고 호치민까지 왔습니다.

여기 동포들은 그래도 한국과 교류가 잦고 역사적으로 파란이나 곡절보다는 진취적 개척이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나오신 분들이 많아 대통령을

만나도 시큰둥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열악한 조건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 대통령을 보고, (제가) 인사라도 하면 힘내실 것 같아 여러분들을 뵙자고 했습니다.(박수)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바쁘데 뭐 할려고 오라카노' 하면서도 '대통령이 보자는데 안 올 수도 없고...'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허 회장이 하도 감동적인 인사말을 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겠구나' 하는 공감이 됩니다.

8박 9일 간 (인도·ASEM·베트남) 일정을 했더니 오늘 오후에는 완전히 녹초가 됐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는 긴장을 했습니다. 기후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말도 한 다리 건너 하고...(웃음) 말을 하려고 하면 통역부터 찾아봐야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려면 긴장이 빠져버리고...

여러분들이 목표와 꿈을 가지고 호치민에 살지만 어려움이 좀 많겠습니까. 허 회장님이 그런 뜻을 담아 인사를 했고 건배제의에도 그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자고 한 것은 잘 했다 싶습니다. 맞습니까? (박수)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어서 여러 나라들이 그런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대접을 잘 받습니다. 러시아 가서도 그랬다. '척사 대접'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척사보다는 좀 높은 것 같고, 하여튼 '손님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인도에서도 그랬습니다. 아셈회의에서는 유럽의 많은 정상들이 제게 말 걸기를 좋아했습니다. 대화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곳 베트남에서도 대접 잘 받고 있습니다. 여러 정상들이 왔지만 시간이나 의전절차를 교섭해보니 베트남 정부가 한국 손님을 중요하게 다루고, 여러 가지를 우선적으로 배려해 각별한 대우하고 있다는 외교장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잘나서 그랬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어서 여러 나라들이 그런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쁘

고 국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모두 우리 국민들이 해낸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에 밑천이 뭐 있겠습니까. 바로 그 밑천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첫째 요인은 국민입니다.

베트남 지도자들이 제게 “대한민국이 그렇게 발전한 원동력이 뭐냐”고 묻더군요. 유럽연합(EU)의 대표도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경제학자나 전문가가 아니지만 (우리의 성장동력은) 사람이고 특히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번 해보자고 각오하는 사람들인데다,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능력도 뛰어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부모세대들이 교육을 성공의 전략으로 삼아 논 팔고 밭 팔고 교육시켜 그 결과가 (지금의) 성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유로운 시장 및 경쟁의 시장이 있고 중화학 개발정책을 국가적 전략으로 삼아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전략은 세 번째 요인입니다. 첫째 요인은 국민입니다. 같은 정책이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기에 성공한 정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기이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민들은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정부 보호의 울타리가 빈약하지만 해외에서 스스로 노력해 개척하고 성공해 정말 고맙습니다. 같은 국민인데도 해외에서 보면 느낌이 좀 다릅니다. 국내서는 제게 박수 잘 안치지만 ….(웃음) 해외에서는 눈빛이 따뜻하고 박수를 열심히 쳐줍니다.(박수)

베트남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힘이 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에 대해 아주 우호적인 나라입니다. 둘째, 베트남은 좀 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성공한 것은 사람 덕분인데, 여기서도 와 닿는 느낌이

다릅니다. 베트남은 국민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셋째, 베트남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입니다. 아세안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데, 이런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열어 가는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베트남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활동 자체가 한·베트남 관계이고 한국의 국력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현대를 찾았고 인도에서는 LG전자를, 여기서는 삼성비나와 한솔비나를 방문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그곳의 대표적 상품 중에서 한국 상품이 1등을 하는 것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핸드폰, 자동차 등이 1, 2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도 또 그랬습니다. 베트남에서도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우리) 상품을 많이 팔면 불안감, 경계심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장사만 하고 돈만 챙기고 가는 것 아니냐 하고.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인도 LG전자 공장에서 한국 사람은 10여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인도 직원들이었습니다. 오늘 가본 곳도 베트남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단단하게 지었고, 직원들을 대우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걱정을 했는데 쓸 데 없는 걱정이었습니다.

한국에 그냥 있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한국 국내에서 기업이 해외로 나가서 산업공동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 기업에서 그렇게 해도 괜찮겠느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에 그냥 있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여기에 왔기에 원단도 가져오고 기술도 가져오고 디자인도 한국에서 하고 그래서 한국 기업도 살아남는다고 하더군요. 나왔기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해외 이전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산업 공동화가 이뤄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